

여수 화물차휴게소 설치 사업 진통

SK에너지 선정... 화물연대·주유소 “자금유출... 민영화 철회” 촉구

여수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사업 선정 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 등은 지난 1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주차난 해소와 화물노동자 휴식공간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주유소, 정비소 설치 등의 이권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지역 116개 주유소 대표들도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물론 자원주유소의 몰락이 우려된다며 여수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 경실련 등도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를 무시하고 SK에너지를 우선 협

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정서에 반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여수시의회 박정재 의원은 “사업 부지는 여수산단 공해저감을 위한 자연녹지 지역인데, 지역정서에 반해 공해유발업체가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취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사업은 지난 2005년 5월 건설교통부가 울산과 여수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총점 1000점에서 GS칼텍스를 39점 차이로 따돌린 SK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주상동 5만3539㎡(주차대수 436대)에 총 사업비 186억원 중 98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3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GS칼텍스가 최근 탄원서를 여수시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여기에 지역사회 전반이 가세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GS칼텍스는 무엇보다도 외부평가단 구성 과정과 지역사회 공헌도를 총점 1000점에서 10점밖에 배점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평가를 맡은 인하대 산학협력 여수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당시 SK에너지를 단독으로 평가한 바 있어 이로 따돌린 SK에너지를 우선표로 선정하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기술부문(550)과 가격부문(450)으로 나뉜 평가분야에서 가격

부문의 공익성 50점 중 ‘지역사회 발

전 공헌도’가 10점밖에 되지 않은 점도 GS칼텍스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그다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 기술부문이나 보상비, 관리운영권 등에 과도한 배점을 적용하고 지역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인시장 시절 많이 많았던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이 사업은 시 재량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정당한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할 일을 백지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곡성 천문대 벤치마킹 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지난 12일 벤치마킹을 위해 곡성 섬진강 천문대를 방문해 600mm 주망원경을 살펴보고 있다. 종로구는 관내에 천문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 제공>

박람회 해외 관람객 유치 ‘청신호’

여수시-中 국제항공사 전세계 운항 협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가 중국 국제항공사와 전세계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국 국제항공사(CA) 한국지점장, 여수세관,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 여수검역소,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 및 항공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존 중국 국제항공 한·중노선의 이용객들을 여수 박람회로 적극 유치하고, 여수공항과 중국 교류도시인 항저우, 샤오싱, 양저우공항에 전세기 운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내 전용 공항인 여수공항에 국제 전세기 운항시 출입국 유관기관의 협력이 절실함에 따라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한국공항공사 등 출입국 관련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2010년 상하이엑스포 전세기에 이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전세기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박람회지원과 관계자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외국인 관람객 가운데 상하이엑스포를 경험한 중국 관광객이 큰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에 또 한걸음 다가갔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세금 등 휴대폰 결제” 고흥군 ARS 서비스

고흥군은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금을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자동응답전화(ARS)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세자들은 고흥군 세금 납부 안내 무료 전화(080-900-3979)에 연결해 ARS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할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휴대폰결제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등 11개 지방세목 모두와 과태료, 임대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세외수입이 가능하다.

납부금액 10만원 이하에 한해 365일 연중 무휴(오전 7~오후 8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며, 세입금 납부후 관바로 납부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영수증이 전송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기차타고茶香의 고장으로~”

보성군-코레일 ‘관광활성화 협약’

보성군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손을 잡고 철도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앞장선다.

양 기관은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철도연계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보성지역에서 스토리텔링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철도를 연계한 열차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특광역 앞에 오봉산 소원바위 스토리텔링 공간을 설치하고 투어버스 운행과 오봉산 등산로 정비, 열차 여행상품 홍보에 힘쓰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접목시켜 관광상품화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별도 실무협의 기구 구성해 운영하고 조만간 관광열차 운행방법과 관광코스, 지원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열차를 활용해 농작물과 제암산 휴양림, 태백산맥 무대지, 한국차박물관 등 지역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전 북

부안군 ‘제 식구 감싸기’ 눈살

허위출장 검찰조사중 노조원에 탄원 서명 받아

부안군청 일부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안군 노조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반성과 개선은 커녕 언론 탓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어 ‘공복’(公僕)이란 공무원의 자제에 대해 질타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다.

부안경찰은 지난 1월 25일 수천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로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11명은 통보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허위출금 신청서와 여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188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과정·계장과 직원들의 회식비, 식대, 예경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부안군 출장비 횡령사건은 한국투명성기구 주관의 1000여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합바집 비리’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부안군 공무원노조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출장비 횡령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노조 본연의 업무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김모씨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말단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네 탓, 언론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무원 자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신희식 기획감사실장은 “허위 출장비 사건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결과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보인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본격 논의... 이달말 합의각서 개정 전망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의 걸림돌인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각서가 조만간 개정될 때 하반기부터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신규과제로 정식 채택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한·미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에 합의각서가 개정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SOFA에 따라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허용

하지 않았으나 전북도 등의 요구로 이 문제를 SOFA의 신규 과제로 정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합의각서가 개정되면 6월 이후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미군측 대표로 구성된 한·미 실무협의회는 1992년 채택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활주로 사용료 등에 대해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항은 새만금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돼 꾸준히 국제선 취항이 거론됐으나 ‘군산공항

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는 이 합의각서에 따라 그동안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했다.

도는 취항이 승인되면 우선 공항 여객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점차 활주로(4천m)를 확장하는 한편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여객사나 항공사 등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북도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 “양측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합의각서가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외국 기업의 새만금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익기자 nogusu@

익산에 쌀 수출 생산단지

연구소·가공시설 등 조성... 해외판로 확대

매년 증가하는 쌀 생산량의 소비방안 하나로 군산과 익산에 쌀 수출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15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쌀 제배면적은 매년 줄고 있는데 반해 쌀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가구당 생산량은 늘어 쌀소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농기원은 군산과 익산에 올해 120ha 규모의 쌀 수출생

산단지를 조성해 쌀의 판로를 확대하

기로 했다. 농기원은 이곳에 쌀 포장 디자인 개발 연구소와 가공시설 등을 지어 매년 350여t의 쌀을 동남 아시아와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농가 생산비 절감 기술을 지원하고 쌀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품질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해외판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보리 밟아줘야 잘 자라요”

김제시 진봉면 경관보전 추진위원과 진봉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최근 진봉들녘에서 보리밟기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는 5월 7~9일 3일간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열린다.

김제시 진봉면 경관보전 추진위원과 진봉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최근 진봉들녘에서 보리밟기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는 5월 7~9일 3일간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열린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kwangju.co.kr

단신

‘한옥마을 관광안내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전주 한옥마을을 손쉽게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전주 정보영상진흥원은 ‘스마트폰 한옥마을 관광안내 서비스’ 개발을 완료,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주변관광 서비스 ▲지

도(Map)기반 서비스 ▲관광명소·맛집·주차장 등을 현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 정구역내 관광객간 대화서비스와 관광객이 각종 사진과 글을 자유로이 등록해 자료를 공유하는 서비스(발도장 쿡)도 제공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남원 에너지 절감시설 오이 2개월 당겨 출하

남원시 사매면 풍촌마을 농가들이 지난해 에너지 절감 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평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이수확을 시작했다.

1기작 오이는 6월 말까지 생산을 한 후 2기작은 7월 중순에 옮겨심어 12월 말까지 수확, 기존 5개월 생산체계에서 연중생산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

절감과 출하기간을 연장, 평년 대비 2배 이상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사매, 덕곡, 이백, 산동 등 중간간부 지역 54 농가들은 21.4ha에서 오이를 재배, 연간 2100t을 생산해 6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 보건소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 정신건강센터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으로 또래 관계 향상에 목적을 둔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건강센터는 사전 선별검

사 후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 문제 행동들을 개선하고 학습능력 감사를 통해 ▲지각·기억·계산 ▲수리·판단·반응 순서로 이뤄진 과정을 수행,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노동부 장류명품화 인력 양성 협약

순창군이 장류(醬類)산업과 함께 음식과 관련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한식 세계화에 나선다.

순창군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장류명품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과정은 ▲취업·창업 과정 ▲장류를 활용

한 장류조리가 양성반 등 2개 과정에 각 20명씩 선발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장류제조 및 실습교육을 개편해 한국의 대표적 ‘장류 아카데미 스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